

# GLOBAL

## 전광우의 글로벌뷰



전광우  
전광우 지음

# VIEW

당신의서재

## Chapter 1. 격변의 세계 질서와 한국의 좌표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글로벌화의 속도가 늦춰지고, 지정학은 경제와 무역을 규정하며,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경쟁은 노골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 트럼프 전후의 미국,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좌표에 놓여 있는지를 묻는다. 세계 질서의 변화는 선택지를 줄이고, 선택의 책임을 무겁게 만든다.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이 사라지는 시대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책은 출발한다.

## Chapter 2. 저성장의 경고음…한국 경제는 어디에서 멈췄는가

한국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성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성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성 정체, 인구 구조 악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 정점론’과 ‘일본화’라는 불편한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장은 한국 경제가 어디에서 속도를 잃었는지, 무엇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 Chapter 3.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본질…시장이 묻는 정치와 제도

감정은 시장을 흔들지만, 신뢰는 시장을 움직인다.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 반복되는 외국 자본의 이탈과 회귀는 구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정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이 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둘러싼 통상적 설명을 넘어, 정치 거버넌스와 제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자본시장이 던지는 질문에 한국 사회는 과연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그 근본을 묻는다.

## Chapter 4. 개혁 없는 미래는 없다…연금·노동·재정의 선택

모든 사회는 언젠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다. 지금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불편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연금·재정·노동 개혁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책임의 문제다. 이 장은 구조개혁을 미뤘은 대가가 무엇인지,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지를 설명한다.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회피 비용은 더 크다. 이 장은 그런 현실을 직시한다.

## Chapter 5. 자강(自強)의 조건…기술, AI, 국가경쟁력의 재설계

국가의 생존력은 결국 스스로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 패권 경쟁, AI 혁명, 반도체와 안보의 연결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됐다.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부의 체력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이 장은 한국이 의존이 아닌 자강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기술과 산업, 인적 자본, 그리고 국가 전략의 재설계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책의 본론은 여기서 ‘전략’으로 수렴된다.



## 지은이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2008-2009)으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조기 극복에 핵심 역할을 했고 같은 기간 한국인 최초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최장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09-2013)으로 국내외 투자 다변화와 기금운용 패러다임 선진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에 이어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1980년대 초 미시간주립대 교수, 이후 15년간 세계은행(WB) 금융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1998년 한국 정부 초청으로 귀국해 경제부총리 특보와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우리금융 부회장(2001-2004), 딜로이트(Deloitte)코리아 회장, 포스코(POSC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2007-2008)를 역임했다. 《Beyond the Crisis》(2010) 등 다수의 국영문 저서와 논문이 있고,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 국내외 주요 언론사에 칼럼을 썼고, 다보스(Davos)포럼 등 국내외 주요 국제컨퍼런스 초청 강연을 했다. '아시아지역 올해의 CEO상'(2011), 창조근정훈장(2012), '인디애나대를 빛낸 국제동문상'(2013) 세계 최초 수상, 서울상대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상'(2023), 서울대 경제학과, 인디애나대 경제학/경영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최고경영자과정(Executive Program)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했다.



## Dr. Jun Kwang-woo



Dr. Jun is currently Chairman & CEO of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Before this appointment, he served as: Chairman & CEO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of Korea, which manages one of the world's largest funds with US\$1 trillion assets; Chairman (Minist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 cabinet post in charge of financial policy and supervision; Korea's 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Finance; Group Vice Chairman of Woori Financial Holdings;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nd, Chairman of the Board at POSCO, a global steel group. Prior to his return to Korea in 1998, he worked for The World Bank (WB) for more than a decade after a professorship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Dr. Jun is an author of numerous articles and several books, including 《Beyond the Crisis》(2010), and has been widely featured in interviews or columns appearing in major press. He received his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 degrees from Indiana University. He has completed Executive Program at Harvard Business School and AMP from the Wharton School.